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5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엠바고] 본 내용에 대한 인용은 라디오·텔레비전·통신사·웹 등에서는 2017년 7월 21일(금) 16:00 이후, 신문의 경우 7월 22일(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 제5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 (대표: 쿠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2017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7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5회째 실시한 결과이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50여명의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본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는 (1) 본 요약발표문 (2) 주요 데이터 테이블 (3) 주요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외신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도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9층)
- 발표: 손열(동아시아연구원), 쿠도 야스시(겐론NPO)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7월 28~29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5회 한일미래대화'에 보고되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5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국 국민인식 차이를 좁히고 냉각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제5회 한일미래대화' 개요에 대한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 제5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 1. 서로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과 일본

-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 보다 긍정적으로, 5년 간 14.6%포인트 상승**  
- 2013년 12.2% → 14년 17.5% → 15년 15.6% → 16년 21.3% → 17년 26.8%
-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증가, 2013년 37.3%→2017년 48.6%**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다', '대체로 좋다'로 응답한 한국인은 2013년 12.2%에서 2015년에 잠깐 주춤했으나, 그 이후 21.3%(2016년)→26.8%(2017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고 나쁨을 반복하다가 올해는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일본인은 2013년 37.3%에서 2014년 54.4%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4년 52.4%, 2015년 44.6%로 줄어들다가 올해 48.6%로 절반에 가까운 일본인이 한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상호 이미지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대국에 대한 방문 경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2013년부터 23.8%→24.8%→26.0%→29.4%→35.1%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문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그렇지 않은 한국인에 비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인의 한국 방문 경험은 2017년 23.7%로 2015년 26.0% 이후 20%대 초반으로 감소되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인은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2015년 41.0%에서 2016년 34.2%, 2017년 27.3%로 줄어든 반면, '일본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5년 11.1%에서 2016년 12.8%, 2017년 20.8%로 증가하여 중국과 일본에 대한 친근감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여전히 일본을 군국주의(49.3%), 국가주의(36.5%), 패권주의(28.0%), 대국주의(23.0%)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긴 했지만, 평화주의(8.5%→9.0%), 민주주의(20.7%→24.3%), 국제협조주의(4.0%→7.8%), 자본주의(32.1%→41.9%), 자유주의(8.8%→11.3%) 등의 긍정적인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일본인은 한국을 민족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평화주의, 자유주의 등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10.8%, 6.3%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패권주의, 사회주의 등 부정적인 인식도 각각 4.2%, 5.0%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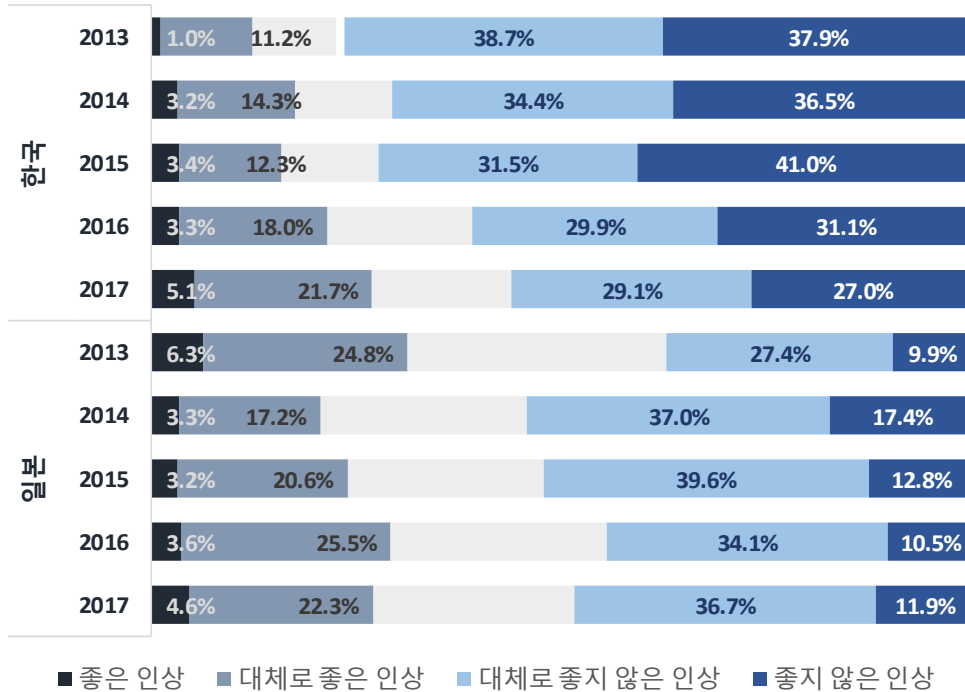


그림 1. 한일 간 상호 이미지(2013~2017)

## 2. 한국인의 90% 한일관계 중요하다고 인식, 한일 양국 모두 관계악화 우려

- 한일관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
- 한일 양국 모두 관계개선 필요하다고 인식, 한국인 44.6%, 일본인 36.5%
-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의견차이 나타나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89.9%로 열 명 중 아홉 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본인도 64.3%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한일관계를 '좋다'고 보는 한국인은 3.0%(2015년 2.6% → 16년 4.3%), 일본인은 7.1%(2015년 5.8% → 16년 10.7%)로 작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나쁘다'고 인식하는 한국인은 65.6%(2015년 78.3% → 16년 62.3%), 일본인은 57.7%(2015년 65.4% → 16년 50.9%)로 2014년 이후,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한일양국 국민들의 국민감정 상황에 대해 70%에 가까운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인 중 23.3%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걱정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44.6%는 '문제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인 중에서는 29.7%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걱정이 된다', 36.5%가 '문제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한국, 일본 각각 49.7%, 45.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좋아질 것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27.8%로 작년에 비해 3.5%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본인은 18.9%로 3.8%포인트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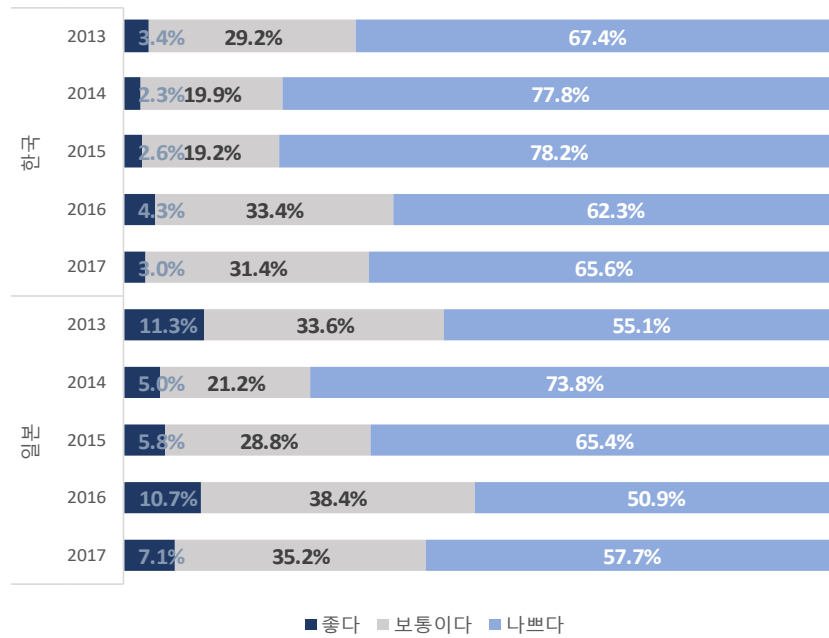


그림 2.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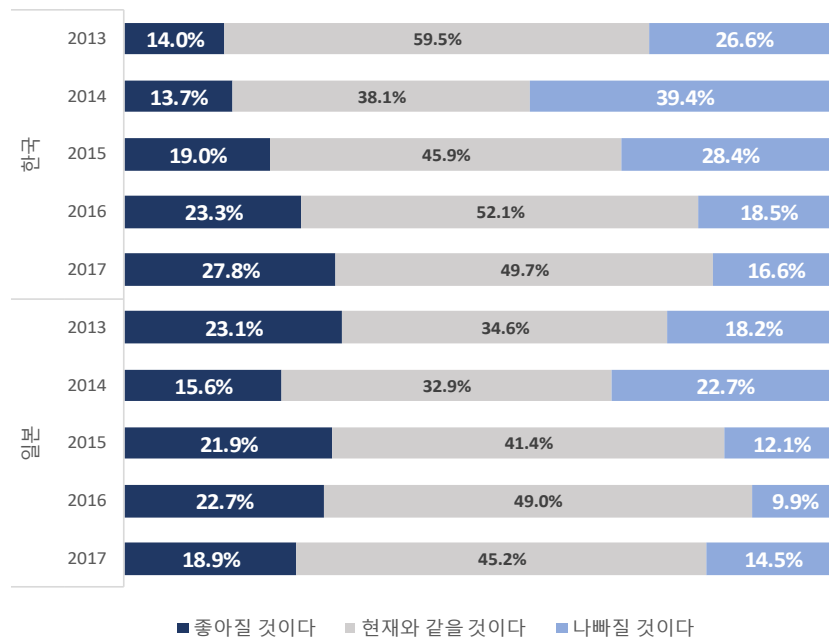


그림 3.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인식(2013~2017)

### 3. 한일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영토, 역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필요

-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 모두 독도, 역사,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꼭아**
  - 한국인은 영토, 위안부, 역사문제에 대한 노력을 특히 중시, 일본인은 그 외 정부 차원의 대화, 신뢰관계, 민간교류, 북핵문제해결 협력 등 다양한 노력 필요 인식
- **한일 양국 모두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로 작년과 비교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 급증**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국인은 독도문제(82.1%),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75.8%), 일본군 위안부 문제(75.8%) 순으로 꼽았다. 일본인도 역사문제(49.0%), 일본군 위안부문제(42.6%), 독도문제(39.2%)를 관계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위 세 가지에 대한 응답만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그 외에도 정부 정상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향상(28.8%), 민간 교류(24.4%), 북핵문제를 위한 협력(21.2%) 등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국인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작년 59.8%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69.6%로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61.0%),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60.3%) 순으로 이어졌다. 작년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문제 외에는 대부분 수치가 소폭 하락하였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일교육과 교과서의 내용이 5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작년 13.3%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한 40.2%로 한국의 반일교육과 교과서의 내용(59.3%),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 행동(56.0%)의 뒤를 이었다.

- **역사문제는 한일관계의 선결과제, 그러나 해결에 대한 비관적 견해 늘어**
- **양국관계가 발전해도 역사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 22.6%→25.0%, 일본 28.1%→29.3%**

일본인 중 '역사문제가 해결되어야 양국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25.5%로 작년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하는 한편, '양국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문제 역시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에 대한 응답은 2016년 30.2%에서 26.2%로 감소하였고, '양국관계발전과 관계없이 역사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응답률은 2016년 28.1%에서 29.3%로 증가하였다.

한국인도 '역사문제의 해결 없이 양국관계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양국관계가 발전해도 역사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25.0%로 작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하였다.

#### 4.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 간 이견 확연, 한국의 불만에 대해 일본 수용 못해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한일 모두 긍정적 평가 줄고, 부정적 평가 늘어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 되지 않았다, 한국 75.0%, 일본 53.8%
- 일본인 중 49.3% 한국인의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합의안 대로 이행해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한국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55.5%(2016년 37.6%)로 절반이 넘었으며, 일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41.8%(2016년 47.9%)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25.4%(20.9%)보다 많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 들고,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중 75.0%, 일본인 중 53.8%가 정부 간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평가 이유는 '더 이상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발목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5.3%로 합의안에 대한 만족보다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평가이유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자가 77.7%로 가장 많고,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49.6%,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49.6%로 뒤를 이었다.

정부 간 합의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에 대해 일본인 중 절반에 가까운 49.3%가 '이해할 수 없으며, 합의한 이상, 한일 양국은 합의를 존중하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22.6%가 '왜 한국인들이 불만인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5. 북한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 긴장 고조될 것, 한중일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

- 10년 후, 한반도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것, 한국 31.2%, 일본 26.3%
-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논의해야 할 과제로 한일 양국 모두 북한의 핵개발 문제 꼽아, 한국 59.8%, 일본 61.0%

10년 후의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2016년 한국 44.0%, 일본 40.2%), 올해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는 답변이 한국 31.2%(2016년 15.4%), 일본 26.3%(18.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016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및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인 83.4%, 일본인 79.5%가 '북한'에게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등에 의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38.6%에 이르렀으며, 일본인은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한일 양국 모두 열 명 중 네 명은 군사적 조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일 양국이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인은 한국, 일본 모두 78.8%, 74.7%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한국인은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75.8%가 반대하였지만, 한국이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67.2%가 찬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을 포함하여 상대국이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감소하고, 찬성의견이 늘어났다.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일 양국 모두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으며(한국 59.8%, 일본 61.0%),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인은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노력(35.8%)',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26.1%)'가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인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25.6%,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21.0%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6. 한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경제 관계 국가

- 한국인, 중국(78.4%), 미국(69.8%), 일본(35.7%) 주요 경제 관계 국가로 인식
- 일본인, 미국(73.6%)을 가장 중요한 경제관계 국가로 인식, 중국(49.5%), ASEAN 국가(32.5%), EU(26.1%), 인도(25.8%), 한국(23.3%) 순으로 이어져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자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상대국을 답한 응답율이 각각 3.6%, 2.6%로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다 상대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중국 78.4%, 미국 69.8%를 뒤이어, 일본(35.7%)을 경제관계에 중요한 국가로 꼽았으며, 일본인은 미국(73.6%), 중국(49.5%), ASEAN 국가(32.5%), EU(26.1%), 인도(25.8%)뿐만 아니라, 한국도 23.3%의 응답자가 경제관계의 중요한 국가라고 답하였다.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일본인 중 51.1%, 절반 이상이 '한국의 경제발전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은 '일본의 경제발전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37.3%,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40.0%로 의견이 양분되어 나타났다.

## 7. 한일관계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필요

- 한일관계에 대한 언론보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아, 한국 48.4%, 일본 29.3%
- 인터넷 여론, 자국의 생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56.9%, 일본 38.4%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한일 양국 모두 90% 이상(한국 94.3%, 일본 93.2%)이 자국의 언론매체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국 언론이 한일관계 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48.4%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본인은 47.1%가 '어느 쪽도 아니다/모르겠다', 29.3%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여 자국의 언론 매체를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의견이 자국의 생각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한국은 56.9%, 일본은 38.4%가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매체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 역할이 높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7년 제5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개요】

한국의 민간싱크탱크인 EAI와 일본의 공인NPO인 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현황 및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5월에 창설한 한일 민간대화(제회 한일미래대화: 2017. 7. 28-29 개최 예정)에서 함께 발표되고 논의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한국측의 여론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조사원에 의해 면대면 면접 방식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3명으로,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7.3%, 중졸이 7.5%, 고졸이 37.6%, 대학재학/중퇴(전문대학 포함)가 13.6%, 대졸이 32.2%, 대학원 이상이 1.9%였다.

일본측의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고교생을 제외)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0명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중졸이 8.3%, 고졸 46.5%, 단기/전문고졸이 19.1%, 대졸이 22.2%, 대학원 졸업이 1.8%이었다.

	일본 여론조사	한국 여론조사
조사지역	일본전국	한국전국
조사대상	18세 이상 (고등학생 제외)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추출 방법	일본 전역 50개 지점. 한 지점당 표본 수는 20명. 전국의 성·연령구성비에 맞춰 할당	전국을 16개 행정구역별 광역단체 기준으로 분할.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 수 결정. 지역별 성·연령구성비에 맞추어 할당
조사방법	방문유치회수법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
조사기간	2017년 6월 17일 ~ 7월 2일	2017년 6월 11일 ~ 6월 29일
유효회수표본	1,000명	1,003명
응답자 속성	남성 48.6%、여성 51.4%	남성 49.8%、여성 50.2%
	초·중졸 : 8.3% 고졸 : 46.5% 단기·전문대졸 : 19.1% 대졸 : 22.2% 대학원졸 : 1.8% 기타 : 0.7% 무응답 : 1.4%	초졸 : 7.3% 중졸 : 7.5% 고졸 : 37.6% 대학재학·중퇴(전문대 포함) : 13.6% 대졸 : 32.2% 대학원 이상 : 1.9%
	20세 미만 : 3.0% 20~29세 : 11.7% 30~39세 : 15.1% 40~49세 : 16.9% 50~59세 : 14.4% 60세 이상 : 38.9%	19~29세 : 17.6% 30~39세 : 17.4% 40~49세 : 20.5% 50~59세 : 19.8% 60세 이상 : 24.5%

## 【2017년 제5회 한일미래대화】

한일미래대화는 2013년 5월 동아시아연구원(EAI)와 겐론NPO가 공동으로 창설한 민간대화의 장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불신과 상호 이해의 결핍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민간 대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양 기관은 양국 국민의 인식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나아가 매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 시민사회가 공개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한일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는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미국 외교협회 (CFR)가 주관하는 세계싱크탱크평의회인 'Council of Councils' (COC)의 상임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COC창립 총회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을 대표하여 겐론NPO가 창립 멤버로 선정되었습니다. COC참여과정에서 겐론NPO와 동아시아연구원은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안정화하고,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한일미래대화'라는 새로운 민간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2017년 도쿄에서 제5회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겐론NPO】 조사결과 및 겐론NPO에 관한 소개는 <http://www.genron-npo.net>
-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결과 및 EAI에 대한 소개는 <http://www.eai.or.kr>
- 【문의】 한일미래대화 한국측 준비관련 문의는 김가현 EAI 대외협력팀장([ghkim@eai.or.kr](mailto:ghkim@eai.or.kr))

겐론NPO  
편집국 프레스/오피서 미야우라 와다  
TEL: 03-6262-8772  
FAX: 03-6262-8773  
MAIL: [info@genron-npo.net](mailto:info@genron-npo.net)

동아시아연구원(EAI)  
연구기획실 수석연구원 신영환  
연구기획실 객원연구원 김보미  
TEL: 02-2277-1683, FAX: 02-2277-1684  
MAIL: [yhshin@eai.or.kr](mailto:yhshin@eai.or.kr); [spring43@hanmail.net](mailto:spring43@hanmail.net)